

익산 침체된 원도심 활력

남중동 일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최종 선정 국·도비 등 총 167억원 확보... 주민 거점시설 조성 등

익산 남중동 일대가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시는 16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남중동 신청사 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등을 포함해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비 1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신청사 지역은 오는 2023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도비 17억, 시비 50억 총 167억원이 투입된다.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남중동 신청사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LH전북지역본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시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했다.

이후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와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공모 준비를 위해 LH전북지역본부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등과 함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김수흥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SOC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익산시 신청사 지역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시청사'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오랫동안 함께 준비해 주신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국에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7년 중앙동일원 중심사가지정형 1개소와 지난해 송화동과 인화동 일원 2개소, 올해 신청사 지역 1개소를 합하여 총 4개소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익산=중앙원기자

군산시, 월명공원 산책길 재정비한다

11월까지... 국비 7억원 투입

군산시가 월명공원 산책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걷고 싶은 명품 산책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월명공원 산책길을 재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걷고 싶은 산책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월명공원 산책로 6.06km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콘크리트 도로를 보

수하고 낡은 탄성포장재를 재포장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 사업은 그 동안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상황으로 산책로 일부 파손 시 부분적인 보수에 그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으나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월명공원 수변산책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산책로 정비 투입예산은 국비 7억원으로 사업내용은 구간별 포장 산책로 특성상 예산상황을 고려해 콘크리트 균열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배수로 정비, 기존 탄성포장재 철거 후 재설치를 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간별 이용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걷고 싶은 공원산책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署,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 강의 성료

군산경찰서(총경 최홍범)는 최근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와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범죄 및 비행 예방을 위한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언어·사이버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청소년 범죄의 유형 및 대응 절차에 관해 설명했다.

강의를 들은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범죄와 비행에 대해서 아기는 들었

지만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내 자녀, 내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게 됐다"며 "평소에 자녀들에게 당부시키고 문제가 발생 시 학교,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홍범 서장은 "비행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 및 선도를 위해 모두가 협력



군산경찰서는 최근 교육지원청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및 비행 예방을 위한 강의를 실시했다.

하여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전주매일 캠페인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정현을 익산시장은 16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5명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5명

서울·방문업체 방문 후 잇단 감염... 고강도 방역체계 전환

익산시가 지역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방역태세로 전환해 지역감염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16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지역 확진자 5명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동선과 고강도 방역대책 추진 방향을 마련해 17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번째(전북 102번) 확진자는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으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을 방문한 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증상이 발현된 12일에는 오후 4시 서울남부차기대를 통해 익산으로 내려와 자택에 머물렀으며 13일에는 오후 8시부터 5시 40분까지 당구장,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호프집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4일 증상이 지속되자 오후 5시 30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했으며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익산=중앙원기자

접촉자는 당구장 12명, 카라카스 호프집 5명, 가족 등 모두 19명으로 파악됐으며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이다.

12번째(전북 103번)를 포함해 4명의 확진자는 50대 남성 1명, 50대 여성 2명, 60대 여성 1명으로 전북 1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잇따라 전주의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11일 동의산철혼상당소를 방문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10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종 통보받고 지난 15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자 4명에 대한 역학조사는 16일 오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동선이 파악되는 대로 접촉자와 방문지 현황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모든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 확인을 위해 핸드폰 GIS, 카드사용 내역,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및 방문지 CCTV 확인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중앙원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전통시장 장보기

군산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지며 상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의 장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16일 민속 대명잡민 추석을 맞아 우리지역 전통시장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 주공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군산시 상생상품으로 저수용품 및 제철과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장을 펼쳤다.

주공시장 고형근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 지역업체 보호 총력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해 공사 용역, 물품 등 216억 원의 수요의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2019년 8월말 기준 160억) 35%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 시는 업체의 실질적인 체감을 위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계약대상자성을 통해 특정 지역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왔다.

이를 토대로 시는 하반기에도 지방계약법 한시특례 적용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 지침을 전 부서에 시달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편의업체 계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품·용역 계약의 지역업체 계약률을 높이기 위하여 생산제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업체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익산=중앙원기자

군산대 문상은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군산대학교 문상은 학생(4학년)이 최근 2020년 YOUNG리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1등)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북도 청년 대상으로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했다.

전북 권역에서 청년정책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출품됐고, 이 중 서류평가를 거쳐 본선에서 10개 팀을 발표상을 거쳐 최종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본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문상은 학생(군산대학교 4학년)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문상은 학생이 공모한 청년정책 내용은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공유 오피스 활성화 정책 아이디어'이다.

문상은 학생 외 군산청년팀의 박미선씨(예술이나 작업이나)가 '청년 예술인 최초 개인전 지원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상(2등)을 수상했다.

/군산=한경봉기자



문상은 학생이 공모한 청년정책을 위한 아이디어이다.

문상은 학생 외 군산청년팀의 박미선씨(예술이나 작업이나)가 '청년 예술인 최초 개인전 지원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상(2등)을 수상했다.